

문해력
교과서

문해력
문제 은행

초등학교 5학년

창비

천 년 전의 기적, -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 여행의 이틀째 새벽, 우리 가족은 앙코르 와트에서 일출을 보기로 했다. 우리는 앙코르 와트 초입에서 해자 위의 다리를 건넜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파서 만든 연못인데, 앙코르 와트의 해자는 ① 다른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어머니는 높은 탑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동안 앙코르 와트의 해자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앙코르 와트가 지어지던 당시 이 일대는 늪지였어. 그래서 물이 잘 빠지게 하려고 땅을 깊게 파낸 후 모래, 자갈, 진흙으로 메우고 다지는 작업을 반복했지. 그럼에도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계속 일어났어. 우기 때 수위가 높아지면 건물이 뜨면서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고, 건기 때 수위가 낮아지면 연결 부위가 조여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건물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수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자를 만든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해를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가장 높은 탑이 65미터나 된다고 하니 사원 전체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웠다.

우리는 1층 회랑으로 들어갔다. 800미터의 긴 벽에 화려하고 섬세한 부조가 장식되어 있었다. 왕이 말을 타고 행진하는 모습, 하늘을 나는 여인의 모습 등이 매우 정교하고 생생해서 무척 놀라웠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고위 승려들과 왕이 목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던 공간이 있었다. 신을 생각하던 옛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2층에 도착하니 우뚝 선 3층을 중심으로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벽의 부조에는 춤추는 여성들이 새겨져 있는데 모두 머리 스타일이나 동작이 다르다고 한다. 어떻게 수천 점의 부조를 모두 다르게 만들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3층은 앙코르 와트에서 가장 높고 신성한 곳으로, 이전에는 고위 승려들과 왕만이 ㉠ 할 수 있었다고 한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매우 가팔랐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출입하라는 의미라고 하니 앙코르 와트가 더 신비롭게 느껴졌다.

환한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앙코르 와트를 돌아보며 다시 해자 위 다리를 건넜다. 과학과 미술이 조화를 이룬 거대한 작품을 감상한 느낌이 들었다. 앙코르 와트는 ‘천 년 전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곳이었다.

1 글쓴이가 앙코르 와트를 여행하며 느낀 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지루함
- ② 무서움
- ③ 외로움
- ④ 신비로움
- ⑤ 사랑스러움

2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앙코르 와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앙코르 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다.
- ② 앙코르 와트의 가장 높은 탑은 65미터이다.
- ③ 앙코르 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 ④ 앙코르 와트의 부조는 오랜 세월이 흘러 희미해져 알아볼 수 없다.
- ⑤ 앙코르 와트의 회랑에는 현재에도 왕이나 승려 계급만 들어갈 수 있다.



3 글쓴이가 각 장소에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사원 초입 - 해자에 대한 설명
- ② 1층 회랑 - 화려하고 섬세한 부조
- ③ 1층과 2층 사이 - 왕이 이용하던 화장실
- ④ 2층 - 3층을 중심으로 펼쳐진 넓은 공간
- 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 계단이 가파른 까닭

4 ㉠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 ② 물의 신을 기리기 위해
- ③ 산에서 사원까지 돌을 운반하기 위해
- ④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 ⑤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5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출국
- ② 출근
- ③ 출동
- ④ 출연
- ⑤ 출입

과민 반응? 아니죠, 먼지 차별이에요!

먼지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존재하며, 치우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에 담긴 알아채기 어려운 차별을 마치 먼지와 같다고 하여 ‘먼지 차별’이라고 합니다.

먼지 차별은 주로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외모나 신체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에서 비롯합니다. 고정 관념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머릿속에 굳어진 생각으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정 관념과 편견을 갖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 차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라면 이 정도는 들어야지.”, “여자가 너무 활동적이야.” 이런 말을 들었거나 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도 먼지 차별을 받거나 행한 것입니다. ㉠ 먼지 차별 중에서도 성별에 대한 차별은 우리 일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때때로 ㉡ 먼지 차별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나 걱정, 감사의 표현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한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왜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라며 도리어 큰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이런 말들은 언뜻 보면 칭찬 같지만, 듣는 사람은 숨겨진 차별에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낱말 중에도 먼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병어리장갑’에는 언어 장애인에 대한 ㉔ 의 의미가 숨겨져 있고, ‘정상인’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정상인으로 보는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낱말들을 ‘손모아장갑, 비장애인’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어떨까요? 생활 깊숙이 파고든 먼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1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먼지 차별에 대응하는 것은 예민한 것이다.
- ② 예전에는 먼지 차별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③ 먼지 차별 중에서도 성별에 대한 차별은 일상에 널리 퍼져 있다.
- ④ 칭찬이나 걱정, 감사를 표현하는 말은 먼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낱말 중에는 먼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별로 없다.

2 먼지 차별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 ① 어린이
- ② 장애인
- ③ 정상인
- ④ 비장애인
- ⑤ 손모아장갑



3 ㉠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여자가 얌전해야지.”
- ② “남자가 왜 자꾸 우니?”
- ③ “남자 축구팀이 우승했대.”
- ④ “여학생이 목소리가 너무 커.”
- ⑤ “남자아이가 이렇게 약해서 어떡하니.”

4 ㉡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여학생이라 역시 꼼꼼하군요.”
- ② “오늘 입은 옷,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
- ③ “장애가 있으신 분이 매우 부지런하시네요.”
- ④ “너는 시골에서 왔다더니 사투리 별로 안 쓰네?”
- ⑤ “그 친구는 외국인인데도 한글을 또박또박 잘 쓰더라!”

5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비교
- ② 비난
- ③ 비유
- ④ 비평
- ⑤ 비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 호미

세계를 휩쓰는 호미

최근 미국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나라의 호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영문명인 ‘코리아(Korea)’의 첫 글자를 따서 ‘케이(K)-호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는 것이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인도, 영국 등 해외에서는 몇 배나 더 비싸게 팔리지만, 그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호미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다는 소식에 국내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호미가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미를 제작하는 한 대장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장간에서 만난 호미 ㉠장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대장간에서 50년 넘게 호미를 만들어 온 장인이 호미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호미는 자동차를 만드는 강철을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아주 뜨거운 불에 쇳덩이를 달군 후 수천 번 넘게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찬물에 담가 식힙니다. 그래야 쇳이 단단해지거든요. 이렇게 메질과 담금질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호미 머리 부분을 다시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30도 각도로 구부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장인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호미 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불량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장인은 아무리 주문이 밀려와도 무리해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하루 생산량을 늘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합

니다. 많이 팔려는 욕심에 생산량을 늘리다 보면 호미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미에 숨겨진 비밀

단순한 듯 보이지만, 호미의 모양에는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호미의 날은 30도 정도 구부러져 있습니다. 서양의 모종삽은 평평해서 땅을 팔 때 힘이 필요하지만, 곡선 모양의 호미는 손목에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양날의 두께가 다른 것도 특징점입니다. 두꺼운 날은 자갈이나 돌이 있는 땅에서 흙을 고르거나 풀을 뽑을 때 좋고, 얇은 날은 질긴 잡초를 뿌리째 뽑거나 농작물을 캐는 데 적합합니다. 뾰족한 끝부분은 식물을 심기 위해 땅을 파거나 작은 고랑을 만들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호미가 해외에서 인기를 누리는 까닭

현대의 농업이 기계화되었다고 해도 정원까지 기계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요? 호미는 정원에서 풀을 뺄 때나 작은 식물을 심을 때 사용하기 알맞습니다. 대형 농기구가 주로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원 가꾸기용으로 우리 호미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것이지요. 게다가 크기가 다양하여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고 용도에 따라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호미를 대량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 호미의 인기를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흉내 내었을지 몰라도 장인의 손길이 닿은 까지는 흉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어 나올 수 없는 우리 호미의 매력, 여러분도 함께 느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1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우리 호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날이 90도 정도 구부러져 있다.
- ② 크기가 작아 주로 어린이들이 쓰기 좋다.
- ③ 정원에서 풀을 뺄 때나 작은 식물을 심을 때 사용하기 알맞다.
- ④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불량품이 꽤 많이 나온다.
- ⑤ 한때 인기가 있었지만 저렴한 다른 나라 호미에 밀려 수요가 줄었다.

2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호미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주 에 쇳덩이를 달군 후 수천 번 넘게 망치로 두드리고 에 담가 식힌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그런 다음 호미 머리 부분을 다시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30도 각도로 구부린다.

- ① 뜨거운 불 - 찬물
- ② 찬물 - 뜨거운 불
- ③ 뜨거운 불 - 뜨거운 물
- ④ 미지근한 불 - 뜨거운 물
- ⑤ 미지근한 물 - 미지근한 불

3 우리 호미가 인기를 누리는 까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다른 나라 호미에 비해 완성도가 높다.
- ② 다른 나라 호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 ③ 양날의 두께가 달라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 ④ 크기가 다양해 용도에 따라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 ⑤ 손목에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



4 ㉞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노인을 이르는 말.
- ② 아내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 ③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
- ④ 도장을 대신하여 지문을 찍은 것.
- ⑤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5 ㉟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품목
- ② 품성
- ③ 품종
- ④ 품절
- ⑤ 품질

가위로 그리는 그림


앙리 마티스는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을 특징으로 하는 미술 계파인 야수파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그는 색채와 빛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노력해 나가는 열정적인 화가였죠. 우리가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드로잉도 100번씩은 연습한 후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수술을 받게 된 그는 의사로부터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화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워서 종이를 오려 작품을 구성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종이에 물감을 칠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오린 다음 못이나 핀 등으로 고정하면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죠. 이것을 컷아웃(cutout) 기법이라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종이를 작은 정원을 만들었지요.”라는 말에서 그가 컷아웃 작업을 매우 즐겨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티스의 긍정적인 태도는 그의 작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앙리 마티스, 「폴리네시아, 그 바다」



위 그림은 「폴리네시아, 그 바다」입니다. 마티스가 남태평양을 여행하면서 본 바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했다고 하죠. 짙고 옅은 정도가 다른 푸른색의 사각형 면들을 배치한 다음, 그 위에 흰색 종이를 여러 가지 생물의 형태를 오려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른색은 우울함을 표현하지만, 마티스는 푸른색으로 편안하고 밝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평화와 고요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마티스. 그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1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마티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다.
- ② 큰 수술을 받고 나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 ③ 당시 유행하던 컷아웃 기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④ 병을 얻은 슬픔과 우울한 감정을 푸른색으로 표현했다.
- 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노력해 나가는 열정적인 화가였다.

2 컷아웃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작은 색점들을 찍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 ② 종이에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반으로 접었다 펴는 방식이다.
- ③ 돌이나 유리, 금속, 조개껍데기, 타일을 조각조각 붙이는 방식이다.
- ④ 나뭇잎 등 울퉁불퉁한 물체에 종이를 대고 색연필로 문지르는 방식이다.
- ⑤ 종이에 물감을 칠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오린 다음 못이나 핀 등으로 고정하면서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3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폴리네시아, 그 바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푸른색으로 편안하고 밝은 느낌을 주고 있다.
- ② 흰색 종이로 여러 가지 생물의 형태를 오려 붙였다.
- ③ 단순해 보이지만 100번 넘게 연습한 드로잉 작품이다.
- ④ 짙고 옅은 정도가 다른 푸른색의 사각형 면들을 배치했다.
- ⑤ 남태평양을 여행하며 본 바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했다.

4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혜수: 마티스의 작품은 간단해 보아서 나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막상 따라해 보면 내 그림은 뭔가 어색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마티스처럼 잘 그릴 수 있을까?

준희: 고 했어. 마티스는 100번씩 연습하고 드로잉을 완성했다고 하잖아.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너만의 느낌이 묻어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 ① 강물도 쓰면 준다
- ②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떴다, 떴다 드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드론으로 촬영된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장면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은 채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 물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나 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야 할 경우 자주 사용하죠. 그렇다고 드론을 방송 촬영이나 개인의 취미 생활용 도구로만 여기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론이 활용되는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드론이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지 살펴볼까요?

왔어요, 왔어! 드론 택배가 왔어요!

드론이 택배를 배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요즘 미국의 한 인터넷 쇼핑몰은 넓은 지역에 집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람 대신 드론을 이용하여 택배를 배송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드론 택배가 널리 활용되면 고객은 상품을 주문한 후 30분 내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변 사물 및 지형, 기후나 도로 상황 등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은 소형 물품만 배송이 가능하고 배송 지역도 한정되어 있지만, 곧 우리도 드론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택시를 부르면 운전자 없이 드론이 날아와 자율 비행으로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현재 개발 중인 드론 택시라면 가능합니다. 드론 택시는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행기와 달리 수직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긴 활주로도 필요 없죠. 또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풍에 대한 대응, 드론 택시끼리의 충돌, 운행 중 고장 등 해결해야 할 안전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드론이 농사를 짓는다고?

드론의 발달로 농업 분야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사용한 무인 헬기는 가격이 매우 비쌌 뿐만 아니라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드론을 활용하면 비용과 환경 오염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지요. 게다가 농약이나 비료 뿌리기, 씨 뿌리기는 물론 수술의 꽃가루를 붓으로 암술에 묻혀 주는 수분 작업까지 드론이 대신해 주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농업 과정에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 없이 드론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출동! 드론 경찰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면 도로 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나 도주 차량의 번호를 알아내고,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도로 상황을 뚜렷이 파악하는 등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척척 해결할 수 있죠. 또 드론은 경찰차가 가기 어려운 곳을 순찰하기도 하고,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도망치는 범인의 위치를 ㉠ 하기도 해요.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현재 드론 기술은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과 같은 산업 분야나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실종자 탐색이나 범죄 예방 등과 같은 공공 부문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아마 앞으로는 드론 기술이 한층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드론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드론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드론 농업은 비용이 많이 든다.
- ② 드론 택배로는 아주 큰 물품도 배송이 가능하다.
- ③ 드론 택시는 운행 중 충돌 위험이 없어 안전하다.
- ④ 드론은 미래에도 취미 생활용 도구로 주로 쓰일 전망이다.
- ⑤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은 채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 물체이다.

2 드론에 붙일 수 있는 별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농부 드론
- ② 선생님 드론
- ③ 카메라맨 드론
- ④ 택배 기사 드론
- ⑤ 택시 운전자 드론



3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드론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 ② 드론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드론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 ④ 드론은 농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므로 농업을 확대해야 한다.
- ⑤ 드론 기술에 관심을 갖고 드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4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드론 경찰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실종자 수색하기
- ② 길 잃은 시민 보호하기
- ③ 밤에도 도로 상황 뚜렷이 파악하기
- ④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번호 알아내기
- ⑤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는 문제 감지하기

5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추가
- ② 추구
- ③ 추방
- ④ 추수
- ⑤ 추적

천 년 전의 기적, 앙코르 와트

1 ④ 2 ② 3 ③ 4 ⑤ 5 ⑤

- 1** 글쓴이는 앙코르 와트의 3층을 오르는 계단이 매우 가파른 까닭을 들으며 앙코르 와트가 더 신비롭게 느껴졌다고 했다. 보기에 제시된 다른 느낌은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신비로움’이 가장 적절하다 볼 수 있다.
- 2** 글쓴이는 ‘가장 높은 탑이 65미터나 된다고 하니 사원 전체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 3** 글쓴이는 1층과 2층 사이에서 왕이 이용하던 화장실이 아니라 고위 승려들과 왕이 목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던 공간을 보았다고 했다.
- 4** 원래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파서 만든 연못인데, 앙코르 와트는 수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원 주변에 해자를 만들었다. 앙코르 와트가 지어지던 당시 일대는 늪지였는데 우기 때 수위가 높아지면 건물이 뜨면서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고, 건기 때 수위가 낮아지면 연결 부위가 조여지기를 반복하여 건물이 흔들렸다. 따라서 수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자를 만들게 되었다.
- 5** 옛날에 앙코르 와트에서 가장 높고 신성한 3층에는 고위 승려들과 왕만이 드나들 수 있었다는 내용의 문장이므로 ‘어느 곳을 드나듦.’의 뜻을 지닌 ‘출입’이 빈칸에 어울리는 낱말이다.



과민 반응? 아니죠, 먼저 차별이에요!

1 ③ 2 ③ 3 ③ 4 ② 5 ⑤

- 1** 글쓴이는 먼저 차별 중에서도 성별에 대한 차별이 우리 일상에 널리 퍼져 있다고 했다.
- 2** 정상인이라는 낱말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보는 편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먼저 차별에 해당하는 낱말이라 볼 수 있다.
- 3** “남자 축구팀이 우승했대.”라는 말은 경기에 대한 사실 결과를 전달하는 내용이므로 성별에 대한 먼저 차별의 예시로 보기 어렵다.
- 4** “오늘 입은 옷,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라는 말은 단순 칭찬의 표현이기에 먼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학생이라 역시 꼼꼼하군요.”는 성별에 대한 먼저 차별, “장애가 있으신 분이 매우 부지런하시네요.”는 장애인에 대한 먼저 차별, “너는 시골에서 왔다더니 사투리 별로 안 쓰네?”는 서울 출신이 아닌 사람에 대한 먼저 차별, “그 친구는 외국인인데도 한글을 또박또박 잘 쓰더라!”는 외국인에 대한 먼저 차별을 담고 있다.
- 5** ‘병어리장갑’이 언어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내용의 문장이므로 ‘업신여겨 낫춤.’의 뜻을 지닌 ‘비하’가 빈칸에 어울리는 낱말이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 호미

1 ③ 2 ① 3 ② 4 ⑤ 5 ⑤

- 1 우리나라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는 정원에서 풀을 뺄 때나 작은 식물을 심을 때 사용하기 알맞아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원 가꾸기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호미의 날은 90도가 아닌 30도 정도 구부러져 있고 크기가 다양하여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지만 불량품이 거의 없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저렴한 호미보다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 2 호미는 자동차를 만드는 강철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아주 뜨거운 불에 쇳덩이를 달군 후 수천 번 넘게 망치로 두드리고 찬물에 담가 식힌다.
- 3 2000년대 후반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호미를 대량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 호미의 인기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다른 나라 호미에 비해 우리 호미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4 이 글에서 장인은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드는 이를 뜻하므로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맞은 뜻이다.
- 5 다른 나라에서 만든 호미가 우리 호미의 모양은 흉내 내었지만 질은 흉내 내지 못했다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물건의 성질과 바탕’이라는 뜻을 지닌 ‘품질’이 빈칸에 어울리는 낱말이다.



가위로 그리는 그림

1 ⑤ 2 ⑤ 3 ③ 4 ②

- 1 마티스는 색채와 빛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노력해 나가는 열정적인 화가였다. 천재적인 재능보다는 노력이 빛나는 화가였고 큰 수술을 받고 나서도 누워서 작업할 수 있는 컷아웃 기법을 생각해 내는 화가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푸른색은 우울함을 표현하지만 마티스는 푸른색으로 편안하고 밝은 느낌을 표현했다.
- 2 컷아웃 기법은 마티스가 누워서 종이를 오려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종이에 물감을 칠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오린 다음 못이나 핀 등으로 고정하면서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 3 드로잉은 주로 선을 활용한 그림을 의미한다. 마티스가 드로잉 작품을 그릴 때에 100번 넘게 연습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있지만 해당 내용은 「폴리네시아, 그 바다」와는 관련이 없다.
- 4 해당 내용은 마티스처럼 그림을 잘 그리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을 지닌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가 빈칸에 어울리는 속담이다.

땀다, 땀다 드론!

1 ⑤ 2 ② 3 ⑤ 4 ② 5 ⑤

- 1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은 채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 물체이다.
- 2 드론은 농업, 촬영, 택배 배송, 택시 운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하지만 본문에 드론이 교육에 활용된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선생님 드론’은 드론에 붙이기 어려운 별명이다.
- 3 이 글을 통해 글쓴이는 다양한 드론 기술을 소개하며 미래에는 한층 더 다양한 영역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글쓴이는 드론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드론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4 본문에는 드론 경찰이 길 잃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드론 경찰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밤에도 도로 상황을 파악하며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번호를 파악하는 등 모든 방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지한다.
- 5 드론 경찰이 도망치는 범인의 위치를 찾아낸다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므로 ‘도망하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음.’의 의미를 가진 ‘추적’이 빈칸에 어울리는 낱말이다.